

## Erickson의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Development Korean Version of the 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S-24)

김 효 정\* · 권 도 하\*\*

Hyo Jung Kim · Do-Ha Kwon

### ABSTRACT

For the exact assessment and diagnosis of stuttering, not only speech disfluency but also the attitude of stuttering has to be considered. However, clinical researches and studies about stuttering have tend to center around disfluenc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the communication attitude of stuttering. In this paper, we will attempt to investigate that the 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S-24) is available in Korean stutterer. The S-24 was administrated to 27 adults with stuttering and 27 normal adults. Based on the item analysis of S-24, 4 items which have the low item discrimination coefficient and are little difference between stutterer group and normal group were excepted from the scale. To test validity of the reconstructed communication attitude scale, we estimated a internal consistency and carried out correlation analyses and discrimination analyses. We found that the reconstructed scale had a high internal consistency( $\alpha = .8701$ ), was consisted six components(explanatory power = 66.59% of total variation), correlated with the PSI at .439 and with the SESAS at -.527, and correctly classified between stutterers and normal adults at 92.6%. Consequently, the reconstructed communication attitude scale is a useful scale to assess stutterer's communication attitude in Korea.

**Keywords:** stuttering, communication attitude, S-24

### 1. 서 론

많은 연구자들이 말더듬을 평가하고 진단할 때, 혹은 말더듬 치료의 효과 유무를 증명할 때,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구어 유창성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말더듬인의 의사소통 태도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Manning, 2001; Guitar, 1998; Shapiro, 1999). 그러나 국내의 말더듬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말더듬 치료 연구들 가운데 치료 전, 후의 구어 유창성의 개선만을 보고

---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할 뿐 의사소통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함께 보고한 사례는 매우 적다.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물론 그들의 의사소통 태도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성인 혹은 이차성 말더듬의 경우는 반드시 태도적인 측면, 혹은 심리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가운데 치료 전, 후에 말더듬인의 태도적인 측면의 변화를 언급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김시영, 1994; 옥정달, 1994; 이일수; 2004).

특히 말더듬 성인의 경우, 김효정(2003)에서 연구에 참여한 6 명의 대상자들 가운데 치료 전 구어 유창성 평가에서 아주 경미한 판정을 받았지만 의사소통 태도 평가에서 아주 전형적인 말더듬인의 태도를 보인 대상자는 구어 유창성이 더 심하게 깨어진 대상자보다 말더듬에 대하여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유창성 훈련과 함께 그룹치료의 상담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개선을 보였다. 치료 전후에 말더듬에 대한 태도특성을 평가하지 않고, 구어 유창성 평가만 실시하였다면, 이러한 대상자의 괄목할 만한 개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발달성 말더듬의 경우 성장하면서, 말더듬의 내면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권도하, 1995a), 말더듬인의 내재적인 여러 특성들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임상에서나 연구에서 태도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말더듬의 빈도, 형태, 지속시간, 수반 행동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들과는 달리, 내재적인 특성 즉 태도, 인지, 신념, 감정, 생각 등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권도하, 1995b). 또한 이러한 내재적인 특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Erickson의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를 국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말더듬 성인 27 명과 정상 성인 27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말더듬 성인 대상자는 발달성 말더듬인 자, 말더듬 심한 정도 검사(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SSI-3, Riley, 1994)에서 경도(mild)부터 최심도(very severe)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두 집단 모두 남자는 24 명, 여자는 3 명이었다. 말더듬 성인의 평균 연령은 27.4 세(20~43 세)이고, 정상 성인의 평균 연령은 27.8 세(22~43 세)였다.

### 2.2 실험 기간

말더듬 성인의 실험 자료는 2003 년 3 월부터 2003 년 11 월까지, ○○대학교 성인언어임상실에서 수집하였고, 정상 성인의 자료는 2004 년 3 월에 수집하였다.

### 2.3 연구의 절차

#### 2.3.1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변안

Erickson의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는 39 문항의 Erickson의 S-Scale(1969)을 Andrews &

Cutler(1974)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4 문항의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버전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24 개의 진술문에 대해 피험자가 진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쉽고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다. 말더듬 성인은 평균 19.22(SD = 4.24) 개의 항목에서 전형적인 말더듬인의 반응을 보였고, 비말더듬 성인들의 경우 9.14(SD = 5.38)개의 항목에서 전형적인 말더듬인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김효정(2003)의 연구에서 Erickson의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한 것을 언어치료학과 교수 2 인과 언어치료사 1 급 자격을 소지하고 현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3 인이 각각 번안 적절성 및 자연성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번안한 S-24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번안한 문항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 문항	예 / 아니오
1. 나는 보통 말을 할 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어느 누구와 말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3.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매우 편안하게 쳐다볼 수 있다.	
4. 나는 선생님이나 상사와 말하는 것이 어렵다.	
5.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렵다.	
6. 어떤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보다 말하기가 더 어렵다.	
7. 나는 말을 시작하면 금방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8. 나는 매우 사립성이 있는 사람이다.	
9.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말할 때 가끔 불편해 하는 것 같다.	
10. 나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1. 나는 여러 사람이 있는 그룹에서 종종 질문을 하는 편이다.	
12. 나는 말을 할 때, 쉽게 목소리를 조절한다.	
13.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14.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말을 잘하지 못 한다.	
15. 말할 때 나의 목소리는 듣기 좋고 편안한 목소리이다.	
16. 나는 때때로 내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당황한다.	
17. 나는 대부분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있다.	
18. 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 나는 쓰기보다 말하기가 더 쉽다.	
20. 나는 말하는 동안 자주 초조함을 느낀다.	
21. 나는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이 힘들다.	
22. 나는 내 말하는 솜씨에 비교적 자신감이 있다.	
23.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분명하게 말하였으면 하고 희망한다.	
24.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종종 대답하기를 포기해 버린다.	

### 2.3.2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문항 분석

먼저 의사소통 태도 척도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문항 변별력 지수를 구하여 문항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 말더듬 집단과 정상 집단의 총점 및 문항 점수의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여 본 척도가 양 집단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문항인지를 알아보았다.

### 2.3.3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수정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과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을 이용한 문항 분석의 결과로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 2.3.4 수정된 의사소통 태도 척도의 적합성 검증

수정된 의사소통 태도 척도의 검사 도구로서의 적합성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척도가 신뢰로운지를 검증하기 위해 Chronbach  $\alpha$ 를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를 구하였다. 두 번째로 척도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척도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김효정(2003)에서 번안된 말더듬 지각 평가(Perceptions of Stuttering Inventory: PSI, Woolf, 1967)와 말더듬 성인을 위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for Adult Stutterers: SESAS, Ornstein & Manning, 1985) 척도와 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집단과 말더듬집단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결 과

### 3.1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문항 분석

#### 3.1.1 문항-총점 간 상관에 의한 문항 분석

의사소통 태도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24 개의 각 문항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그 검사가 측정하려는 능력을 예리하게 변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과 전체문항들과의 상관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문항변별도 지수를 얻었다(<표 2>).

표 2.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문항변별도

문항번호	문항변별도	문항번호	문항변별도
문항1	.4095	문항13	.6786
문항2	.3300	문항14	.3945
문항3	.4478	문항15	.3976
문항4	.4831	문항16	.3896
문항5	.4975	문항17	.6383
문항6	.3484	<b>문항18</b>	<b>.2701</b>
<b>문항7</b>	<b>.0555</b>	문항19	.4624
문항8	.4050	문항20	.4687
문항9	.3549	문항21	.5018
<b>문항10</b>	<b>.2733</b>	문항22	.6242
문항11	.5417	문항23	.5291
문항12	.3167	문항24	.4393

문항 변별도 범위 .0555~.6786

문항 변별도(문항-총점 상관계수)의 평균 .4274

문항 변별도 지수에 의해 문항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Ebel(1965)에 따르면, .40 이상은 변별력이 높은 문항, .30~.39는 변별력이 있는 문항, .20~.29는 변별력이 낮은 문항, .10~.19는 변별력이 매우 낮은 문항, .10 미만은 변별력이 없는 문항이라고 하였다(김숙연, 2003, 재인용).

본 척도에서는 문항 7의 변별도가 .10 미만으로 변별력이 없는 문항으로 나타났고, 문항 10과 18은 변별력이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 3.2.2 말더듬 집단과 정상 집단 차이에 따른 문항 분석

말더듬인에 대한 의사소통 태도 검사로서 본 척도가 의미를 가지려면 말더듬 집단과 정상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 태도의 차이를 구현할 수 있는 문항 및 척도여야 한다. 두 집단의 문항 및 총점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집단 간 평균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정상집단과 말더듬 집단의 S-24 문항 및 총점의 평균비교

문항번호	정상집단		말더듬집단		t	평균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문항1	.63	9.47E-02	.15	6.97E-02	4.095***	.48
문항2	.78	8.15E-02	.70	8.96E-02	.612	.07
문항3	.67	9.25E-02	.48	9.80E-02	1.375	.19
문항4	.70	8.96E-02	.33	9.25E-02	2.878**	.37
문항5	.74	8.59E-02	.19	7.62E-02	4.837***	.56
문항6	.93	5.14E-02	.59	9.64E-02	3.053**	.33
문항7	.74	8.59E-02	.74	8.59E-02	.000	.00
문항8	.59	9.64E-02	.41	9.64E-02	1.359	.19
문항9	.67	9.25E-02	.33	9.25E-02	2.550*	.33
문항10	.22	8.15E-02	.19	7.62E-02	.332	.04
문항11	.74	8.59E-02	.19	7.62E-02	4.837***	.56
문항12	.78	8.15E-02	.48	9.80E-02	2.324*	.30
문항13	.81	7.62E-02	.44	9.75E-02	2.994**	.37
문항14	.89	6.16E-02	.67	9.25E-02	2.000	.22
문항15	.89	6.16E-02	.37	9.47E-02	4.589***	.52
문항16	.70	8.96E-02	.44	9.75E-02	1.959	.26
문항17	.78	8.15E-02	.30	8.96E-02	3.976***	.48
문항18	.15	6.97E-02	.07	5.14E-02	.856	.07
문항19	.85	6.97E-02	.44	9.75E-02	3.401**	.41
문항20	.56	9.75E-02	.22	8.15E-02	2.623*	.33
문항21	.59	9.64E-02	.30	8.96E-02	2.252*	.30
문항22	1.00	.00	.33	9.25E-02	7.211***	.67
문항23	1.00	.00	.63	9.47E-02	3.911***	.37
문항24	.70	8.96E-02	.41	9.64E-02	2.252*	.30
총점	17.1111	.6501	9.4074	.9078	6.900***	7.7037

\* p < .05.

\*\* p < .01

\*\*\* p < .001

집단 간 독립 t 검정의 결과를 보면 전체 문항은 양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문항별로 살펴보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모두 16 개 문항이다. 나머지 문항들 가운데 특히, 문항 7의 경우 양 집단의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문항 2, 10, 18의 경우 미미한 차이로 양 집단이 모두 높은 점수를 받거나, 모두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 '나는 어느 누구와 말을 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더듬 집단과 정상집단에서 모두에 그렇지 않다는 답이 비슷하게 많았다. 문항 7 '나는 말을 시작하면 금방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 버린다' 역시 두 집단에서 모두 그렇다는 대답이 높게 나왔다. 문항 10 '나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와 문항 18 '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에서는 두 집단 모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은 말더듬 집단의 의사소통 태도를 잘 나타내는 문항이라고 볼 수 없다.

### 3.2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수정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분석에 의해, 문항변별도가 낮은 문항 7, 10, 18과 집단 간 평균 비교에서 평균차가 거의 나지 않았던 문항 2, 7, 10, 18은 본 척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척도에서 적절하지 못한 4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0 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표 4>). 수정 S-20 척도에 의한 말더듬 집단과 정상 집단의 기술통계 값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4. 수정된 의사소통 태도 척도(S-20) 문항

의사소통 태도 척도 수정(S-20) 문항	예 / 아니오
1. 나는 보통 말을 할 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매우 편안하게 쳐다볼 수 있다.	
3. 나는 선생님이나 상사와 말하는 것이 어렵다.	
4.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렵다.	
5. 어떤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보다 말하기가 더 어렵다.	
6. 나는 매우 사립성이 있는 사람이다.	
7.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말할 때 가끔 불편해 하는 것 같다.	
8. 나는 여러 사람이 있는 그룹에서 종종 질문을 하는 편이다.	
9. 나는 말을 할 때, 쉽게 목소리를 조절한다.	
10.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11.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말을 잘하지 못 한다.	
12. 말할 때 나의 목소리는 듣기 좋고 편안한 목소리이다.	
13. 나는 때때로 내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당황한다.	
14. 나는 대부분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있다.	
15. 나는 쓰기보다 말하기가 더 쉽다.	
16. 나는 말하는 동안 자주 초조함을 느낀다.	
17. 나는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이 힘들다.	
18. 나는 내 말하는 습속에 비교적 자신감이 있다.	
19.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분명하게 말하였으면 하고 희망한다.	
20.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종종 대답하기를 포기해 버린다.	

표 5. 수정 S-20 척도에 의한 말더듬 집단과 정상 집단의 기술통계표

집단	수정 S-20 총점				백분위수			
	사례수	평균	표준오차	범위	10%ile	25%ile	50%ile	75%ile
말더듬 집단	27	15.22	.553	10-20	10	13	16	18
정상 집단	27	7.70	.807	2-16	2.8	4	8	11

### 3.3 수정된 의사소통 태도 척도의 적합성 검증

수정 후 재구성한 의사소통 태도 척도(S-20)가 국내의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 태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 가지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 3.3.1 내적 일치도

수정 S-20 척도의 동질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를 산출하였다. 전체 집단의  $\alpha = .8701$ 로 나타나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 3.3.2 요인구조

수정 S-20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분석 방법인 주성분 분석법, 회전 방식은 varimax를 실시하였고, scree test에 의해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6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들 요인들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66.59%였다(<표 6>).

표 6. 수정 S-20 척도의 회전된 요인행렬표

문항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문항16	<b>.858</b>	.0003	.069	-.110	.148	.087
문항14	<b>.729</b>	.142	.256	.173	.223	.071
문항4	<b>.725</b>	.155	.070	.188	.023	.102
문항20	<b>.541</b>	.458	.020	.022	.064	-.108
문항18	<b>.456</b>	.443	.198	.400	-.063	.330
문항3	.262	<b>.826</b>	-.129	.075	.098	.142
문항13	-.172	<b>.622</b>	.409	.041	-.003	.320
문항19	.434	<b>.481</b>	-.018	.160	.123	.274
문항11	.169	<b>.450</b>	.253	-.217	.414	-.015
문항17	.391	<b>.425</b>	.339	.129	.191	-.268
문항1	.247	-.056	<b>.775</b>	.343	-.104	-.018
문항6	.015	.047	<b>.676</b>	-.195	.441	.044
문항7	-.008	.058	<b>.603</b>	-.167	.109	.485
문항12	.153	.103	<b>.558</b>	.183	.029	.133
문항9	.021	-.043	.171	<b>.851</b>	.120	.034
문항8	.243	.268	-.035	<b>.664</b>	.219	.239
문항2	.148	-.031	.008	.193	<b>.864</b>	.164
문항10	.227	.402	.166	.293	<b>.718</b>	.037
문항5	-.047	.080	.229	.204	.051	<b>.727</b>
문항15	.292	.142	.002	.052	.118	<b>.687</b>
고유치	6.013	1.991	1.540	1.420	1.307	1.048
설명된 총 변량의 %	30.066	9.955	7.698	7.102	6.533	5.238

요인 1은 30.07%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 초조함, 자신감의 저하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는 9.96%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말하기의 어려움, 힘듦, 말을 잘 못함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3은 7.7%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들로 타인이 느끼는 자신의 인상, 불편함, 목소리와 사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는 7.1%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음성 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요인 5는 6.53%의 변량을 설명하고 대중 앞에서 말하기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 요인 6은 5.34%의 변량을 설명하면서 특정 단어에 대한 공포와 쓰기에 대한 선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3.3.3 다른 비교 척도와의 상관관계

수정 S-20 척도가 다른 유사한 척도들과는 어느 정도의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김효정(2003)에서 번안된 말더듬 지각 평가(Perceptions of Stuttering Inventory: PSI, Woolf, 1967)와 말더듬 성인을 위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for Adult Stutterers: SESAS, Ornstein & Manning, 1985)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수정 S-20 척도와 다른 비교 척도와의 상관

척도	수정 S-20	PSI	SESAS
수정 S-20	1.000		
PSI	.439* (.025)	1.000	
SESAS	-.527* (.008)	-.240 (.259)	1.000

27 명의 말더듬 대상자들 가운데 PSI 척도는 26 명에게 실시하였고, SESAS 척도는 24 명에게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 S-20과 PSI척도와의 Pearson 상관계수는 .439( $p = .025$ )로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SESAS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527$ ( $p = .008$ )로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SESAS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수정 S-20은 점수가 높을수록 말더듬인의 태도에 가까운 반면, SESAS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 3.3.4 척도의 판별력

수정 S-20 척도의 점수에 따라 말더듬 집단과 정상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수정 S-20 척도를 이용한 말더듬-정상 집단의 판별분석 결과

집단	사례수	예언된 집단		정확판별율 (평균)
		말더듬	정상	
말더듬 집단	27	26 (96.3%)	1 (3.7%)	92.6%
정상 집단	27	3 (11.1%)	24 (88.9%)	



판별분석의 결과 수정 S-20 척도는 말더듬집단의 27 명중 26 명(96.3%)을, 정상 집단에서는 27 명중 24 명(88.9%)을 각각 정확하게 판별하였고, 전체 정확 판별율은 92.6%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Erickson의 의사소통 태도 척도(S-24)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번안한 후,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척도를 수정하였고, 수정한 척도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치도, 요인구조분석, 다른 비교척도와의 상관분석, 마지막으로 양 집단의 판별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차 문항 분석으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문항별별도를 알아보았다. 본 척도의 문항 변별도는 평균 .4274로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높았지만, 문항 7, 10, 18의 경우 변별력이 낮거나 없는 문항이었다. 2 차 문항 분석으로, 말더듬 집단과 정상 집단의 총점 및 항목별 평균차를 분석하였다. S-24 척도는 전체적으로 양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고, 문항 중에는 16 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문항들 가운데 집단 간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문항은 문항 2, 7, 10, 18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항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들은 문항 2, 7, 10, 18을 척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항 변별력이 낮고,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4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0 개의 문항으로 의사소통 태도 척도를 수정하였다. 수정한 척도에 의하면 말더듬 집단은 평균 15.22(10~20)였고, 정상 집단은 평균 7.70(2~16)이었다.

번안하고 수정한 의사소통 태도 척도(S-20)가 국내의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 태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다. Cronbach Alpha 값이 .8701로 수정 S-20 척도는 내적인 일치도가 높으며, 비교적 동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정 S-20 척도의 구성이 적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본 척도가 6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인 1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 초조함, 자신감의 결여’, 요인 2는 ‘말하기의 어려움’, 요인 3은 ‘타인과의 관계’, 요인 4는 ‘자신의 음성 통제’, 요인 5는 ‘대중 앞에서 말하기’, 요인 6은 ‘특정 단어 공포와 쓰기에의 선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정 S-20 척도가 다른 유사한 척도들과의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김효정(2003)의 말더듬 지각 평가(PSI)와 말더듬 성인을 위한 자기-효능감 척도(SESA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PSI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SESAS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비록 표준화된 척도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비교 척도와 상관을 보이므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 S-20의 정상 집단과 말더듬 집단에 대한 판별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말더듬 집단의 96.3%를, 정상 집단의 88.9%를 정확하게 판별하였고, 전체적으로는 92.6%를 정확히 판별하여, 높은 판별력을 지닌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한점은 연구 대상의 수가 적은 것으로, 척도의 표준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대상자로부터 정규 분포를 확인하고, 정상과 병리의 기준을 나누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 연구를 통하여 수정된 의사소통 태도 척도 S-20은 국내의 말더듬 임상이나 연구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도구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권도하 역a. 1995. *말더듬 임상관리*. 한국언어치료학회.  
 권도하 역b. 1995. *말더듬 치료 프로그램*. 한국언어치료학회.  
 김숙연. 2003. *한국어판 CADL-2의 개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시영. 1994. *점진적 언어 난이도 증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말더듬 치료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  
 김효정. 2003. *그룹치료가 말더듬 성인의 유창성과 말더듬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효정, 권도하. 2004. *Valsalva-말더듬 치료법이 말더듬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언어 치료 연구, 13(2), 129-142.*  
 이규식, 옥정달. 1994. *이차성 말더듬이들에 대한 말더듬 수정 프로그램 적용효과.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17(2), 21-40.*  
 이일수. 2004. *천천히 말하기 기법이 성인 말더듬인의 유창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Andrews, G. & Cutler, J. 1974. Stuttering therapy: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symptom level and attitud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9*, 312-319.  
 Guitar, B. 1998.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2n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Manning, W. H. 2001. *Clinical decision-making in fluency disorders* (2nd ed.). San Diego: Singular.  
 Shapiro, D. A. 1999. *Stuttering intervention: a collaborative journey to fluency freedom*. Texas: PRE-ED.  
 Woolf, G. 1967. The assessment of stuttering as struggle, avoidance and expectancy.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2*, 158-171.

접수일자: 2005. 11. 08

게재결정: 2005. 11. 30

#### ▲ 김효정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1205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 전공  
 Tel: +82-53-650-8273  
 E-mail: hyojaung@hanmail.net

#### ▲ 권도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1205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Tel: +82-53-650-8273  
 E-mail: dhkwon210@hanmail.net